

가을 불청객 '은행 악취' 해법없나

광주 가로수 30%...냄새 진동·안전사고 위험 높아 市 "냄새 주범 암나무 타 수종 교체 사실상 어려워"

가을 불청객 '은행나무 열매 악취' 제거 방법은 없을까. 광주시 자치구가 해마다 잇따르는 은행나무의 악취를 잡기 위해 열매 수거 작업을 완료·진행 중이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또 수거되지 않은 낙과가 버섯이 방치돼 보행자가 미끄러운 열매를 밟고 넘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커보이는 등 매년 반복되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전역에 심어진 가로수 16만1천그루 중 은행나무는 4만5천그루로 집계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병충해에 강하고 생명력이 탁월한 은행나무는 대기오염 예방 효과도 뛰어나 20~30년 전 주된 가로수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당시 기술로는 나무의 암·수 구분이 어려웠던 탓에 그때 심어진 나무가 아직까지 대체되지 않아 가을철만 되면 지독한 악취를 풍기고 있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선 암나무를 다른 가로수로 교체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가로수만 따로 옮겨 심는 작업 비용도 만만치 않아 열매를 떨어내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광주 5개 자치구는 은행 열매가 떨어져 악취를 풍기기 전에 수거 완료율 목표로 각각 일정에 맞춰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의 상가나 학교를 중심으로 오는 15일까지 은행열매 수거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찾은 서구 화정지구대 맞은편 보행로에 심어진 은행나무 주변은

수거 작업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진동했다. 수거되지 않은 채 떨어진 열매가 오가는 이들에 치이며 부서지고 차량 타이어에 밟혀 짓이겨진 채 방치됐기 때문이다. 이에 보행로에 즐비한 은행 열매를 피하며 화정역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던 한 시민이 이를 밟아 미끄러지는 위협적인 한 상황도 연출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커 보였다.

시민 서모(25)씨는 "매일같이 오가는 길인데 매년 이맘때마다 반복되는 악취

가 아주 고역이다"며 "떨어진 열매를 밟아 미끄러질 뻔한 적이 있어 (열매를) 피하려다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을 보지 못해 부딪칠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시각 북구 중흥동 구시청사거리 버스 정류장 인근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버스 안내판 바로 옆 은행나무 밑에 떨어진 열매가 수북이 쌓여 정류장 인근은 악취가 진동했다.

그 탓에 버스를 기다리던 한 시민이 냄새를 피해 정류장에 밀착이 떨어져 있다가를 보지 못한 버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됐다.

또 떨어진 낙과가 방치돼 보행로 곳곳에서 짓이겨져 오가는 시민들은 터진 은행 열

매가 짓눌리면서 생긴 자국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인근 주민 윤모(35)씨는 "열매를 완전히 떨어내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쪽에 모아 둔다는 것이 버스 정류장 바로 옆이나"며 "굴러다니는 열매가 밟고 짓이겨져 풍기는 악취가 여느 때보다 심하고 도시 미관마저 해쳐 사후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원녹지와 관계자는 "열매가 땅에 떨어진 채 방치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자치구별로 진동기를 이용한 열매 수거 작업과 자치구 공동방화대 수시로 낙과를 수거하고 있다"며 "도심 곳곳의 암나무를 다른 가로수로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재영기자



각 지자체가 가을만 되면 특유의 악취를 풍기는 은행나무 열매를 수확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한 인도에 미처 수거하지 못한 은행 열매가 가득하다. /김예리기자

오늘의 날씨 ▶ 지역 날씨 최저/최고/인

해돋이 06:37 해질 18:01
달돋이 13:58 달지기 23:43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70 (마스크 챙기세요)
- 빨래 50 (실내 건조 좋아요)
- 세차 30 (내부 건조 좋아요)
- 운동 80 (준비운동은 충분하)

지역	강수량(%)	지역	만조	간조
광주	30-30	목포	06:54	11:56
목포	30-30	순천	01:19	07:23
순천	30-30	여수	14:56	21:50
여수	30-30			

주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기(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10월 14/목	(18/26)	(16/24)	(16/21)	(16/24)	(14/25)	(22/27)
15/금	(18/24)	(16/21)	(17/24)	(17/22)	(17/24)	(20/26)
16/토	(16/19)	(13/18)	(16/20)	(16/19)	(17/20)	(19/21)

▶ 날씨안내 : 국민열선131

광주 구청장협,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광주시 5개 자치구가 정부와 광주시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 소상공인 등에 대해 특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에는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꽃집과 서점, 문구점, 공공영역 문화 체육시설의 비정규직 강사가 포함됐으며 5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10만 원이 지급되고 등록된 종교시설에는 방역물

품 구입비로 30만 원이 지원된다. 전체 지원금 규모는 5개 자치구를 통틀어 6천880여 개 대상, 20억9천여 만 원에 달한다.

지원금 신청은 각 구청별 누리집을 참고해 온라인 또는 신청서, 증빙자료를 구비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이번 특별 지원으로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6억 5천여 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태훈기자

전남대병원, 초음파 진료비 전국 최고

연세세브란스·서울아산보다 비싸...서동용 "적정 수준 개선해야"

국립대병원인 전남대병원의 일반 임상부 초음파 비급여 진료비가 서울 소재 대형 상급종합병원인 연세세브란스병원 진료비보다 무려 13만5천 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남대병원의 일반 임상부 초음파 비급여 진료비는 19만3천 원으로

14개 대형병원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연세세브란스병원 진료비 5만8천 원보다 무려 13만5천 원이 더 많은 것이다.

산모들의 고통 완화와 태아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늘어나고 있는 임상부 정밀 초음파 검사 비용 역시 전남대병원이 가장 비쌌다.

같은 기간 전남대병원의 검사 비용은 4만2천 원으로 국립대병원 중 가장 저렴한 제주대병원과 비교해 무려 4배 이상 비쌌다.

또한, 서울 소재 대형 상급종합병원 중 가장 높은 검사비를 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과 비교해도 19만1천 원이나 더 많았다.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매년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어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보편적용이 되지 않는 진료비를 마음대로 정해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적정 수준의 비급여 진료비 책정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서구, 부동산 중개업 자율점검제

광주 서구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점검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인터넷을 통한 자율점검제를 실시, 공인중개사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불법중개 행위를 스스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자율점검은 서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실시할 수 있다. 서구는 허위 점검표 제출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중개업소를 방문해 별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재영기자

남구, 적극행정 우수 사례 6건 선정

광주 남구는 공익 창출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 발표했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는 고행정책과에서 추진한 '옴즈케어 남구TV 실버 노래자랑'이 차지했다.

실버 노래자랑은 가족 간 화합 도모 및 효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적극행정 우수 사례는 주민자치과에서 주민결정형 마을설계 방식으로 추진

한 '효덕동 분동'으로 민원처리 대기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크게 줄였다.

두 번째 우수사례는 홍보담당관 부서에서 추진한 '주간 남구' 정책사업으로, 구청 공무원들이 한주간 소식을 동영상 콘텐츠로 손수 제작해 매주 한 차례씩 제공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다.

지난 8월27일 첫 회분의 경우 조회 수가 1천300건을 뛰어넘었고, 2회분 역시 1천400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행정기관의 정보 제공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조태훈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건강한 남도의 숨결이 담긴 문화관광형 시장, 여기는 양동시장입니다!

1910년대에 광주교 아래 백사장에서 달마다 2일과 7일에 장이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인 1940년, 신사 주변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69년 12월 이전에는 시영시장으로 운영되다가 그 후부터 민영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1972년에 시장 옆에 복개사가 생겼고, 지금은 현대적인 시설로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산물, 수산물, 공산물, 기타 물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340여 개 있습니다.

*양동시장은 특히 계수용품이나 혼수용품으로 유명하며 4월~9월에는 첫째~셋째 주 일요일이 정기휴일이고, 10~3월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시장구분 : 상설시장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 238
개설일 : 공식개설일 1973년

- 주요취급품목
- 생식물(야채, 청과, 생선), 가공식품(반찬, 젓갈) 등
- 양동시장 상인회 : 062-366-0884

· 점포수 : 340곳
· 시장면적 : 10,563㎡

양동시장 둘러보기

건강한 남도의 산지 직송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전국 우수 전통시장
인정받지는 시장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
문의 : 062)650-2099